

# 中國의 教師 養成 改革 動向\*

— 師範大生 無償教育을 중심으로 —

李庚子\*\*

## <목 차>

1. 머리말
2. 사범대생 무상교육 실시 배경 및 목적
  - 2.1 무상교육의 실시배경
  - 2.2 무상교육의 목적
3. 사범대생 무상교육의 내용
4. 사범대생 무상교육의 문제점 및 대안
5. 맺음말

## 1. 머리말

한국에서는 중등임용시험이 생긴 이후 많은 학생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매진하고 있다.<sup>1)</sup> 해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임용시험은 교원양성 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또 하나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임용시험의 경쟁이 치열

\* 이 논문은 2011년도 경상대학교발전기금재단 학술연구조성비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재단법인 경상대학교발전기금재단-2011-02).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1) 현행 한국의 중등임용 시험은 1차(객관식)시험으로 교육학과 전공을 시험보아 2배수를 선발하고, 2차 전공(논술형)시험에서 1.5배수를 선발한다. 그리고 그 인원내 한해서 3차 시험(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지도안 작성)까지 실시한 후에 최종 1배수의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임용시험은 2014년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체제가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뀐다.

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화가 낭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임용시험이 최선의 교사선발 방식인가? 그리고 임용시험을 거쳐 뽑힌 교사가 과연 최고의 교사인가? 국가는 교원임용시험으로 선발된 교사를 지역별, 인구별 등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여 누구든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몇 가지 의문점을 안고, 최근 중국의 교사 양성에 있어 교사의 질적, 지역별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교사 양성은 고등학교 단계의 사범학교, 3년제의 사범계열 전문대, 4년제의 사범계열 대학이 있다. 이 중 유치원 교사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교사는 사범학교 또는 사범계열 전문대를 졸업해야 하며, 중학교 교사는 3년제의 사범계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는 4년제 사범계열 대학을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배출된 교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사연수학교, 교육학원 등에서 교사 연수를 받는다. 최근 베이징에서는 타 지역에서 훌륭한 교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재직교사의 경우 학력교육, 직무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학력 향상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傭修教師(한국의 수석교사에 해당), 학과리더교사제 도입, 교장자격증 제도 등을 도입하고 교사 공개초빙, 교사 계약제 등을 통해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각종 교사능력경시대회 및 포상 제도를 통해 교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며 교사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7년을 '무상교육의 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의 경제적 빈곤지역, 벽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의무교육단계의 학잡비를 면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기숙사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생활비를 보조한다는 것이다. 둘째, 2007년 국가부속 여섯 개의 사범대학에 입학하는 사범대생들에게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 교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근의 개혁 중 사범대생

을 중심으로 2007년 가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제도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교사 양성에 대한 최근의 개혁 동향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사 양성 연구와 정책에 他山之石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2. 사범대생 무상교육 실시 배경 및 목적

### 2.1 무상교육의 실시배경

중국에서 2007년부터 실시된 사범대생 무상교육은 사실 최근에 새롭게 개혁된 제도이지만 그 기원은 1897년 清末 南洋公學에 사범학원을 설립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범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은 청말 학제개혁 즉 壬寅學制(1902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壬寅學制는 1902년 官學大臣 張百熙(1847-107)가 주동이 되어 체계적으로 제정된 문건으로 이를 <欽定學堂章程>이라 통칭한다. 壬寅學制에서는 경사 대학당 및 고등학당에 모두 사범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여 중학 교사를 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각 省의 중학에 사범학당을 설립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여 소학 교사를 양성하면서, 이를 토대로 중국 사범 교육제도가 발달되었다. 이후 1904년 1월 13일 張之洞(1837-1909) 등이 중심이 되어 다시 <初級師範學堂章程>, <優級師範學堂章程>을 포함하여 내부에 학제 문건을 두었는데, 이를 <奏定學堂章程>이라 통칭하고 '癸卯學制'라고 한다. 癸卯學制는 중국 근대이후 정부에 의해 반포되고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제이다. 이 학제에 사범대생 무상교육 및 근무 규정을 두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사범대 무상교육제도 및 사범대생이 어떻게 교육에 종사해야 하는 지에 관한 제도가 확립되었다.<sup>2)</sup> 따라서 사범교육은 2012년 현재까지 계

산하면 이미 11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사범계 학교가 생긴 중국의 백여년의 역사를 보면 사범교육제도는 비록 몇 차례에 걸쳐 변화되었지만 사범대생 무상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이에 일부 학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범대생 무상교육정책을 제도적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비록 중국의 사범교육 무상교육 정책이 건립초기부터 실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1997년 대학생 확대 모집이 실시된 이후에는 점점 학비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무상교육을 받던 학생들은 자비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며, 국가는 졸업 후 일괄적으로 배정하던 직업을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범대학 및 학생수의 감소, 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2000년 사범대학 등록금 자체 부담 학생모집을 시작하면서 경제적, 지역적 격차로 인해 경제적으로 낙후하거나 벽지에 있는 학생들은 좋은 교사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공평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무원은 2007년 5월 <교육부직속사범대학사범대생무상교육실시방법(시행)教育部直屬師範大學師範生免費教育實施辦法(試行)>을 반포하고 2007년 가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北京師範大學, 華東師範大學, 東北師範大學, 華中師範大學, 陝西師範大學, 西南大學 등 교육부 직속 여섯 개의 부속사범대학에 다니는 사범대생에게 무상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가는 여섯 개의 교육부 부속 사범대학의 학생들에게 ‘兩免一補(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국가에서 다시 사범대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첫째, 교사를 존중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많은 우수 교사와 미래의 교육자를 양성하며, 이를 통해 기초교육의 질을 높이

2) 胡嬌, <我國師範生免費制度考略(1902年-1949年)>, 《河北師範大學學報/教育科學版》(第5期, 2008), 55~56쪽.

3) 王海建, <免費師範生角色認同和政策導向研究文獻綜述>, 《高教研究》(第2期, 2012), 83쪽.

고 교육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계 전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소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국가가 교사교육개혁, 발전, 양성을 촉진·지지하고 덕과 재능이 겸비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 이러한 무상교육 정책의 배경에는 비싼 학비를 내야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중서부지역 등의 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농촌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있다.

## 2.2 무상교육의 목적

중국에서는 사범계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초보적으로나마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서 조정된 정책은 1993년 <中國教育改革發展綱要>에 비의무교육단계에서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1996년 <高等學校收費管理暫行規定>에 고등교육기관 학비 기준을 정하고 농림, 사범, 체육, 항해, 민족 전공 등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전공 장학금을 받는 학생만 학비를 면제받도록 하였다. 그 후 일부 사범계학교에서 학비를 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전체 학생 무상교육에서 부분적으로 학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1997년 이후 대학생 확대모집 이후 많은 지방 대학의 사범교육 전공계열에서 부분적으로 학비를 받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 이르러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학비를 받기 시작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확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사범대생과 비사범대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사범계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학비를 받기 시작한 정책 이후, 시장경쟁체제가 교사교육에 도입되고 사범대생 모집 규모가 작아졌으며, 졸업 후에도 국가에서 취업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범대생에 대한 무상교육 취소 후 중국의 교육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즉, 사범계학교의 지위가 동요되고 사범계학교 본래의 특색이 사라졌으며 점차 종합대학을 목표로 전환하든가 학교명을 바꾸

는 분위기가 만연해졌다. 또한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범대생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정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범계 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결국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조화로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차원에서 교육부 직속 부속사범대학에 무상교육을 통해 사범대생을 양성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사범대생 무상교육정책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무상교육을 받은 사범대생들이 졸업 후 농촌 및 벽지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기초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중서부지역 및 벽지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열악하다. 많은 교사는 이러한 지역에서의 교직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사 질은 도시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사들이 적다. 이에 정부에서 사범대생 무상교육정책을 시행하여 훌륭한 교사를 양성해서 이들에게 거주지의 초중등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이들 지역의 교육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이들 지역의 교원부족을 보완하고,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기초교육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둘째, 빈곤 가정 학생 및 우수학생들에게 교직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육대중화와 대학에서 학비를 받는 제도의 실시에 따라 대학 학비는 많은 빈곤 가정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 교사라는 직업에 뜻을 둔 학생도 교사의 낮은 대우, 학비로 인해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사범대를 진학해서 교육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비록 국가에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졸업생 취업난은 가정이 빈곤한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꿈을 저버리게 하고 있다. 이에 사범대생 무상교육 정책은 빈곤가정 학생들이 자신에게 처해진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사범교육에 대한 특수성의 확보이다. 사범계학교는 사범계 특색이 있어 이를 통해 사범교육의 질을 높이고 스승을 존중하고 가르침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런데 1990년대 후기 많은 대학이 종합성 연구형 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사범계학교도 특수목적 대학의 사범계 학교에서도 비사범계 전공 지식과 사범계 전공 외의 전공을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사범대의 특색이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는 교사를 양성하는 데 그 질과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사범대생 무상교육정책은 기존의 사범계 학교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범계 학교의 특색을 명확하게 하여 교사 양성의 질과 교학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우수한 사범대졸업생들이 졸업 후 출신지역으로 돌아가 지역의 교육 수준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졸업이후 대학원 진학과 해외 유학을 금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교원양성 계획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며 개혁으로 교사 양성의 질적 제고, 우수한 젊은 연령층의 교사 양성, 누구나 훌륭한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의 취지에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3. 사범대생 무상교육의 내용

<師範生免費教育協議書>와 <教育部直屬師範大學師範生免費教育實施辦法(試行)>을 토대로 사범대생 무상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학조건은 <師範生免費教育協議書>에 의하면 국가는 교육부직속 사범대학에서 사범대생 무상교육을 실행하여 우수한 초중등 교사와 교육자를

양성해서 이들이 교육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종사할 것을 장려한다고 하였다. 협의 체결조건 1조를 보면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의 전국 통일 고사 모집 자격을 갖추고, 교육 사업에 열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장기적 혹은 평생 동안 교육계에 종사해야 하며, 사범계의 전공 시험에 지원해야 한다. 지원자가 심사를 거쳐 입학 조건에 부합하면, 사범대생 무상 교육 입학을 동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教育部直屬師範大學師範生免費教育實施辦法(試行)>을 보면, 부속사범대학은 사범계전공 실행 전에 차수로 뽑으며, 우수하고 교육에 열정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 장기 혹은 평생 교육계에 종사할 우수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師範生免費教育協議書> 제9조에 의하면 4년 동안 학비와 기숙사비가 무상이고, 생활 보조금이 지급된다. 동시에 기타 非의무성 장학금도 누릴 수 있다. 단, 공부 기간을 연장하면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국가 정책 규정에 의거하여, 무상교육 사범대 졸업생이 재직 중 교육석사전공학위를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무상교육 사범대 졸업생에게 재직 중 교육석사학위를 주며, 제6조에는 무상교육 사범대 졸업생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계속적인 연구와 평생 학습, 직업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제8조에는 국가교육행정부문의 관련 규정 및 (갑)의 교원양성 방안에 따라, (갑)의 교육양성을 접수하고, 4년을 기한으로 공부한다고 하였다. 무상교육 사범대생은 입학 후 2년 내 규정된 사범계 전공 내에서 두 번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11조), 정한 교육 수업 계획을 주어진 시간 내 완성하고, 양성 방안의 요구를 달성하며, 본과 졸업 증서와 학사 학위 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12조)고 하였다.

이들의 근무조건을 <師範生免費教育協議書>에서 살펴보면 국가 사범대생 무상교육의 관련 정책에 따라 국가에 의무를 다하며 졸업 후 소재지로 돌아가 배정된 초중등학교에서 최소 10년을 종사해야 한다(13조). 도시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상교육 사범대졸업생은 우선 농촌 학교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해야 한다. 무상교육 사범대생은 농촌학교에서 교직을 맡는 동안 학교의 원래 임금



복리대우를 누리고, 정부 관련 부문과 초중등학교는 무상 사범대생이 농촌에서 교직을 맡는 동안 필요한 근무생활 조건과 숙사를 제공해야 한다(18조)고 하였다. 무상교육을 받은 사범대생 졸업생은 초중등학교 교직을 맡은 후 1학기가 지나면, 재직 중 무상교육석사 전공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심사를 거쳐 합격할 수 있는데, 부속사범대학 근무심사결과, 본과과정의 성적과 종합 심사에 따라 입학이 결정된다(15조). <教育部直屬師範大學師範生免費教育實施辦法(試行)>에 의하면 심사를 통해 부합되는 무상교육 사범대 졸업생은, 교육석사 전공학위 연구생 시험에 지원할 수 있고, 재직 중 전공과정과 교직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인터뷰를 통과하면 교육석사학위 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師範生免費教育協議書>의 제15조와 19조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教育部直屬師範大學師範生免費教育實施辦法(試行)>을 보면, 무상교육 사범대 졸업생은 협의된 규정 업무 기간 내, 학교 간 이동 혹은 교육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끝으로 違約의 경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師範生免費教育協議書>에 따르면 졸업 후 본 협의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교육 근무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 처리결정 발표 후 한 달 내에 (병)에게 무상교육을 받았던 모든 비용을 한 번에 반환하고, 학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기한이 지나면, 하루에 1%비율로 체납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졸업 후 초중등학교 교직 근무 기간을 10년을 못 채우거나, (병)의 동의를 안 거치고 교직에서 내려올 때, 부족한 근무기한에 따라(교직에서 내려온 그 해 포함) 매년 10%의 비율로 (병)에게 학비를 반환하고, 그 비용의 50%를 위약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하루에 1%의 비율로 체납금을 지불해야 한다(23조). <教育部直屬師範大學師範生免費教育實施辦法(試行)>을 보면, 국가는 무상교육 사범대생이 장기적 혹은 평생 교육계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무상교육 사범대졸업생이 초중등학교의 교육 근무 관련 협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무상 교육을 받은 비용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성급 교육 행정 부문은 계약 관리를 책임지고, 무상 사범대생의 처벌 자료를 만든다. 특수한 원인으로 합의

를 이행하지 못하면, 성급교육행정부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교직을 맡고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非사범 전공 우수학생은 입학 2년 내에 교육부와 학교가 지정한 계획 내에서 사범계 전공으로 전입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학교로부터 학비와 숙사비, 생활보조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을 받은 사범대생은 학교 규정에 따라 사범전공 범위 내에서 전공을 두 번 선택할 수 있다.

2007년 사범대생 무상교육 정책을 실시한 이후 2011년 6월까지 4년이 지났다. 4년 동안의 성과를 方增泉, 李進忠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sup>4)</sup> 첫째 이 제도는 많은 학생들이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유인책이 되었다는 것이다. 6개의 부속 사범대학에서 4년 동안 무상 사범대생을 4.6만 명 모집하였다. 모집생을 보면 대체로 계획된 대로 학생 수가 충족되고 학생들의 질적 수준도 비교적 높았으며, 중서부의 학생이 90%, 농촌 출신학생이 60%로 지역도 고루 분포되었다. 둘째, 교사교육 개혁을 촉진시켰다. 여섯 개의 부속사범대학은 학교특색을 살리고 교사교육과정, 양성 방안, 교학조건, 교육실습 등 방면에서 교사교육 개혁을 촉진시켰다. 셋째, 취업과 근무를 비교적 잘 수행하였다. 처음에 무상교육 사범대 졸업생들은 <師範生免費教育協議書>에 협약한 대로 90%이상 중서부지역의 초중등학교에서 교직을 맡았다. 그 중 약40%는 縣, 鎮 이하 초중등학교에 근무하였다. 예를 들면 북경사범대학 졸업생 중 廣西 출신 학생인 40여명의 무상교육을 받은 사범대생은 모두 광서 南寧, 柳州 등의 초중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였다. 이전에는 졸업생 중 廣西로 돌아가는 학생이 상당히 적었다. 넷째, 현격한 시범작용을 했다. 최근 新疆 자치지역에서는 여섯 개 사범대학 및 학원의 사범계 전공 무상교육을 받는 학생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매년 600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河北, 江蘇, 上海, 湖北, 四川, 雲南 등에서도 사범대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킬 것이다. 앞으로 江西, 湖南 등에서도 무상교육 사범대생을 양성하여 농촌의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도록 할 것

4) 方增泉, 李進忠, <師範生免費教育的成效, 問題與對策>, 《北京教育(高教)》(第582期, 2011), 4쪽.

이며 廣東, 甘肅 등에서도 졸업 후 농촌에서 근무하고, 海南省과 天津직업기술 사범대학에서는 협력하여 중등직업학교 교사를 무상으로 양성하도록 하고 있다. 內蒙古自治區에서도 몽고어를 가르치는 사범계열 전공생에게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인데, 이처럼 사범대생 무상교육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 4. 사범대생 무상교육의 문제점 및 대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범대생 무상교육은 관심을 받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이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사범대학 위상에 대한 제고이다. 교육부직속 사범대학은 높은 수준의 교학조건과 자격 계다가 각종 대우조건이 좋고 배출된 학생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제도로 농촌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방에 소속된 사범대학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들 학교의 질적 향상을 제고해야 한다. 사범대생 무상교육 정책의 목적 중 하나는 농촌교사와 농촌교육의 질적 향상이다. 현재 지방사범대학의 경우 취업률 등 많은 면에서 부속사범대학의 학생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부속사범대학생이 의무기간동안 농촌에서 근무하고 농촌의 교육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보다는 지방사범대생을 육성하여 농촌의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사범대생과 부속사범대생간의 교육평등, 교육기회의 균등 등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사범대생 무상교육 대상자의 신분에 대한 불공평이다. 사범대생 무상교육정책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범대생의 취업과 미래교육발전에 있어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의 출신 성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사범대생 무상교육정책은 학생 개인의 사회자본과 가정배경에 의해 조성된 불공평한 정책이

다.<sup>5)</sup>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는 교육균형발전과 교육평등을 어느 정도 실현한 셈이다. 즉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사범교육을 받게 하여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2008년에 중앙교육과학연구소에서 6개의 부속사범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농촌 출신 학생이 59.3%이며 학생가정의 수입은 인민폐 500원이하였다. 무상교육을 받는 사범대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평균 38%를 차지하였다.<sup>6)</sup> 또한 지역 간 교사자원의 균형 교육평등을 촉진하였다. 능력 있는 교사는 도시 및 대규모 학교로 진출하여 실제로 농촌이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훌륭한 교사를 초빙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낙후된 지역의 학교를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현상과도 비슷한데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도 유능한 교사들이 종사하여 누구나 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부직속 부속사범대학에 속하지 않는 사범학원, 사범학교 및 학생들에 대한 불공평이다.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방사범대학 사범학원 출신이다. 교육부직속 부속사범대학에 비해 지방사범대학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 및 각종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제로 무상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넷째, 의무 근무기간 문제이다. 무상교육 4년의 혜택으로 10년 이상을 초중등학교에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장기간의 근무 제한은 교사의 사기 및 창의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처럼 사회의 변화가 빠른 시대에 10년이라는 기간은 해당 교사에게 상당히 길다. 따라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기타 교사가 교직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폭제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편중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이다. 2007년 이후, 4년 동안 6개의 부속 사범대학에서 무상교육 사범대생 총 4.5만 명을 모집하였는데, 그중 2007년에는 전국에서 실제로 10,737명을 모집하였다. 2008년의 모집생수는 11,383명, 2009년에는 12112명, 2010년에는 11,315명을 모집했는데 구체

5) 丁福興, 周琴, <師範生免費教育政策的價值論辯: 範疇與框架> 《黑龍江高教研究》(第1期, 2012), 7쪽.

6) 丁福興, 周琴, 위의 논문, 6쪽.

적인 모집생수는 다음과 같다.<sup>7)</sup>

<무상 사범대학생 모집 현황>

단위: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北京師範大	494	885	797	645
華東師範大	977	1,047	1,466	1,247
東北師範大	1,529	1,610	1,701	1,540
華中師範大	2,200	2,280	2,305	2,200
陝西師範大	2,600	2,639	2,908	2,803
西南大學	2,937	2,895	2,935	2,880
합계	10,737	11,383	12,112	11,315

2007년부터 시작된 무상 사범대생 교육으로 수험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학생들의 수준도 향상되었다. 첫 해에 10,737명에서 시작하여 2009년까지 모집생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다소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적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감소의 원인을 밝히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모집생수는 중서부 지역에 편중되어 2007년 중서부지역의 학생수가 90.8%에 이르렀다. 2008년에는 11,383명 2007년에 비해 646명이 증가하고, 2009년에는 12,112명에 이르러 2008년에 비해 729명이나 증가했는데, 여전히 중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중서부 지역의 경제 취약지역 외에 빈곤지역 및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을 발굴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고루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7) 葛文雙, <師範生免費教育實施進程中存在的問題與思考>, 《國家教育行政學院學報》(5, 2011), 55쪽.

## 5.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에서 2007년부터 시행한 사범대생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사범대생 무상교육 정책은 2012년 현재 시행한 지 5년이 지나고 이미 졸업생들은 협약 조건에 따라 출신지역에서 교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사범대생에 대한 무상교육 정책 시행 이후 이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본 취지대로 중서부지역의 교육 수준과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비록 모든 대학입학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농촌과 빈곤가정 자녀의 학생들에게 대학에 진학해서 교사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원양성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 교사 양성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교사자격증을 부여받아도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발령을 대기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 및 도농 간 교사 수준 및 교육환경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도 교사의 질적 문제로 인해 교사의 학력을 제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도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중국에서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경제적 빈곤지역, 우수한 교사 양성 등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도 현재 신설학교, 농어촌, 벽지에 있는 교사들을 살펴보면 경력 있는 교사나 능력 있는 교사는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일부 승진 등을 위해 일부러 이러한 지역을 신청하는 자 외에는 거의 초보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정책적으로 유능한 교사들이 이러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및 혜택을

마련하여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改革開放30年中國教育改革與發展課題組, 《中國大國的崛起》, 北京: 教育科學出版社, 2008.
- 方曉東 等, 《中華人民共和國教育史綱》, 海口: 海南出版社, 2002.
- 別敦榮·楊德廣 主編, 《中國高等教育改革與發展30年: 1978-2008》,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9.
- 楊泉明 主編, 《中國高等教育改革發展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 嚴新平 主編, 《21世紀高等教育改革與發展》(第一輯), 武漢: 武漢理工大學出版社, 2005.
- 于述勝 等, 《中國教育三十年: 1978~2008》, 四川: 四川教育出版社, 2008.
- 應望江 主編, 《中國高等教育改革與發展30年: 1978-2008》, 上海: 上海財經大學出版社, 2008.
- 田正平、商麗浩 主編, 《中國高等教育百年史論》,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6.
- 中國高等教育學會組 編, 《改革開放30年中國高等教育發展經驗專題研究: 1978~2008》, 北京: 教育科學出版社, 2008.
- 崔運武 主編, 《中國師範教育史》,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2006.
- 葛文雙(2011), <師範生免費教育實施進程中存在的問題與思考>, 《國家教育行政學院學報》, 5.
- 高謙民, <中國師範教育的歷史回顧與前瞻>, 《江蘇教育學院學報》, 第1期, 1998.
- 方增泉、李進忠(2011), <師範生免費教育的成效, 問題與對策>, 《北京教育(高教)》, 第582期.
- 王海建(2012), <免費師範生角色認同和政策導向研究文獻綜述>, 《高教研究》, 第2期.
- 秦克鑄, <我國教師教育現存的問題及對策>, 《教育探索》第9期, 2006.
- 秦克鑄(2007), <“師範生免費教育”政策回歸: 新時期教師教育政策的重大調整>, 《當代教育科學》, 第8期.
- 丁福興、周琴(2012), <師範生免費教育政策的價值論辯: 範疇與框架>, 《黑龍江高教研究》, 第1期.
- 胡嬌(2008), <我國師範生免費制度考略(1902年-1949年)>, 《河北師範大學學報/教育科學版》, 第5期.
- <http://www.nlc.gov.cn>(검색기간 2011. 06-2012.05)

<http://www.cnki.net>(검색기간 2011. 06-2012.05)

<http://www.bnu.edu.cn>(검색기간 2011. 06-2012.05)

### < 中文提要 >

本文從中國教師培養改革中，觀察了從2007年秋季開始試行的師範生免費教育制度。主要考察免費教育的試行背景、目的和免費教育的試行狀況，就據以展望中國的師範生培養。從2000年起，中國的師範大學施行把注冊費作為自己負擔的招生機制。期間，由於經濟條件和地區之間的差異，經濟條件落後的地區或偏遠地區的孩子很難獲得優秀的教育機會了。因此從2007年起，中國政府在全國範圍內選撥1萬多名學生，在6所教育部直屬師範大學(在北京師範大學、華東師範大學、東北師範大學、華中師範大學、陝西師範大學和西南大學)實行師範免費教育。4年修讀年限中，免除學費，免受住宿費並補助生活費等在大學生活中必要的費用幾乎都支援給免費師範生。免費師範畢業生回生源所在省份中小學校任教服務10年。這樣政策的目的是優秀免費師範畢業生回生源所，為了促進地區教育的發展水平。這是中國教員培養計劃的重大決定，要提高培養教師的質量，要培養青年的優秀教師，從一個優秀的教師任何人都將提供接受教育的機會等的旨意一直持續至今。

關鍵詞：免費教育、免費師範生、師範生、師範大學、教師培養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9. 30.	2012. 11. 2.	2012. 11. 18.	2012. 11. 21.	2012. 11. 30.